



부상에 멈춘 김주찬

KIA타이거즈 '최고참' 김주찬(39)의 플로리다행이 무산됐다. 팀 사상 첫 외국인 감독인 맷 윌리엄스 감독을 필두로 왕조재건에 나선 KIA는 오는 2월 미국 플로리다 포트미어에 캠프를 차리고 2020년 준비에 돌입한다.

KIA는 2군 해외 전지훈련을 치르는 대신 참가 선수만 50명이 넘는 대규모 플로리다 캠프단을 꾸릴 예정이다.

하지만 캠프 참가 선수 명단에 21년 차 베테랑 김주찬의 이름은 빠졌다. 김주찬이 지난달 12일 왼쪽 허벅지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캠프에서 재활조로 자리를 옮기게 됐기 때문이다.

김주찬은 2016년에도 같은 부위에 생긴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시즌이 끝난 뒤 11월에 수술을 받았던 김주찬은 재활 과정을 거쳐 2017년 2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시즌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상적인 훈련이 불가능한 만큼 김주찬은 캠프 기간 국내에서 재활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달 지방종 제거 수술 캠프조서 재활조로 이동 다음달 플로리다행 무산

재활·복귀 4~5개월 소요 전훈 대신 개인 훈련 소화

KIA 새 야수진 구성 관심

KIA 관계자는 "김주찬이 지난달 12일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재활과 복귀에는 4~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캠프 참가가 불발됐지만 김주찬은 의욕적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김주찬은 새해 첫 날인 1일에도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개인 훈련을 소화하기도 했다.

김주찬이 시즌 초반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KIA의 야수진 구성에 더욱 관심이

쏟아지게 됐다.

김주찬의 공백 속에 지난 시즌 중반 이범호가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3루수, 우타 거포리는 두 물음표도 더해진 상황.

여기에 KIA는 아직 FA 시장에 나온 프랜차이즈 '키스톤 콤비' 김성빈 안치홍에게 구체적인 금액·조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시즌 야수진에서 박찬호와 이창진이라는 '깜짝 스타'가 탄생하기는 했지만, 체력과 경험이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한편 김주찬이 캠프에서 빠지게 되면서 최형우(37)가 '민형'이 되어 KIA의 스프링캠프를 이끌게 됐다.

무상 트레이드로 SK 와이번스에서 이적한 내야수 나주환(36)이 캠프 '넘버 2'가 된다.

마운드에서는 윤석민의 은퇴로 '에이스' 양현종(32)에게 투구 최고참 타이틀이 넘어가게 됐다.

2019시즌 투수조 조장으로 활약하고 영칭(31)이 양현종에 이어 두 번째 최고참으로 캠프를 치르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승격을 향하여'



코치진 완성...10일부터 전훈

전남드래곤즈가 '전경준호' 구성을 완료했다.

전남은 2일 "전경준 감독과 함께했던 한동훈 코치 외에 최철우, 한동진, 김성현, 강진규 코치를 추가로 영입해 K리그 1 승격을 위한 2020시즌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U-17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았던 최철우 코치가 수석코치로 전 감독을 보좌한다.

최 코치는 울산 현대에서 데뷔해 포항

스틸러스, 부천SK 등에서 활약했으며, 대동정산고 코치에 이어 U-17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제주유나이티드 유소년 코치 및 감독으로 활약한 한동진 코치는 골키퍼 코치로 합류했다.

김성현 코치는 피지컬 코치를 맡고, 전남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강진규 코치는 2군을 지휘한다.

한편 '승격'을 목표로 내세운 전남은 오는 10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건너가 1차 동계 전지훈련을 소화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1·2 역대급 입장수입

전체 193억3332만원...각각 39.5%·16.1% 늘어

K리그 흥행 돌풍이 리그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31일 2019 시즌 K리그 전체 입장수입과 평균 객단가를 발표했다.

2019 K리그1,2 전체 합계 수익은 193억 3332만 6059원으로 연맹이 입장수입을 집계한 2013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2019시즌 K리그1 전체 입장수입은 162억 3372만 8556원을 기록, 2018시즌의 116억 3859만 8469원에 비해 약 39.5% 증가했다.

구단별로는 FC 서울이 가장 많은 38억 8430만 900원을 기록했고, 대구 FC가 22억 2325만 9550원, 수원 삼성이 21억 7684만 7500원, 전북 현대가 19억 8999만 7093원 순이었다.

2019시즌 K리그2 전체 입장수입은 30억 9959만 7503원으로 2018시즌 26억 6896만 8150원에 비해 약 16.1% 증

가했다.

구단별로는 전남 드래곤즈가 7억 3686만 4100원, FC안양이 7억 1254만 1000원으로 1,2위를 기록했다.

2019시즌 K리그1 12개 구단의 평균 객단가는 7800원으로 지난 시즌 7326원에 비해 6.5% 증가했다. 역시 2013년 객단가가 집계 이후 최다 기록이다.

구단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1만 1899원, 대구가 1만412원으로 나란히 1만원대 객단가를 달성했다.

K리그2의 평균 객단가는 3275원이었으며, 안양이 4863원으로 가장 높은 객단가를 기록했다.

객단가는 관객 1인당 입장수입을 의미한다. 시즌 전체 입장수입에서 실제로 경기를 관람하지 않은 시즌권 소지자의 티켓 구매금액을 차감한 후 이를 시즌 전체 유료관중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더 강해진 광주FC 기대해!



K리그1에 복귀한 광주FC 선수들이 2일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2020시즌 첫 훈련을 시작했다.

<광주FC 제공>

순천·태국서 1·2차 전지훈련...전술·조직력 강화

광주FC가 1부리그 도전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2020시즌 K리그1 무대로 복귀한 광주가 2일 순천에서 1차 동계훈련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모여 순천으로 이동한 선수들은 오후 3시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기초 체력 훈련을 시작으로 새 시즌 새 걸음을 내디뎠다.

광주는 순천 일대에서 진행되는 국내 전지훈련에서 개인 역량평가, 개별전술 프로

그램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또 오전·오후 훈련뿐만 아니라 격일로 야간 체력훈련과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근력 향상 및 전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내에서 몸을 만든 선수들은 19일 태국 치앙마이로 건너가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나서게 된다. 2차 해외 전지훈련은 오는 2월 13일까지 계속된다.

광주는 치앙마이에서는 전술훈련에 주

안점을 두고 4-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실전 감각과 조직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의 '터줏대감' 여름은 "K리그1은 경쟁이 강하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선수들이 동계훈련에 임하는 각오도 남다르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2020시즌은 K리그1에서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승 감독'으로 2019시즌 K리그2 정상에 오른 박진섭 감독은 2020시즌 K리그1 도전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다.

박진섭 감독은 "선수들의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체력과 전술 훈련을 안배해 나갈 예정"이라며 "K리그1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0시즌은 기존 선수들과 함께 조직력을 유지하며 부족한 포지션은 보강을 통해 대비하려 한다"며 "훈련도 중요하지만 부상 예방도 중요하다. 잘 준비해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